

인적·물적 자원 확충해야

제도적 보완과 학생들 의식개혁 필요

- 도서관이 곧 경쟁력 -

도서관은 대학의 학문적 수준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규모가 크고 내실있는 도서관을 가진 대학일수록 그만큼 학문적 기반이 튼튼하게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건학 100주년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본교 도서관의 장서보유 실태와 시설·복지환경 등을 점검해본다.

편집자

① 장서보관 실태 분석

② 시설·복지 환경 분석

본교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월 개관한 이후 도서관 외관이나 시설 면에서는 타 대학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다는 평가이나 학생들의 편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내부 환경과 복지 면에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들어 도서관에 출입하면 도서검색대, 대출반납실 등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현재 도서관 내 전체 인터넷 시스템의 서버 용량이 부족해 과부하 현상을 일으켜 속도가 느리고 서버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서 대출과 반납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도서 검색·자동 대출 시스템 역시 하루 중 학생들의 이용 시간이 많은 오후에는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전체 중앙 도서관내 인터넷 서버를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점진적으로 서버와 프로그램

의 교체 작업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람실 확충 방안 마련

또한 도서관 내 열람실 부족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본교 중앙도서관의 일반 열람실과 자료실 좌석을 포함한 전체 일반 좌석 수는 2,039석으로 한양대학 6,177석, 인하대 6,450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도서관의 리모델링 후 현재 중앙도서관에 위치한 전체 일반 열람실을 600여석 확충해 옮겨갈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의 중앙도서관에는 도서 자료실만이 위치하고 자료실에 마련돼 있는 열람 테이블 역시 확충시켜 전체 3,500여 석으로 일반 좌석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관 직원수 증원 시급

중앙도서관 내 제도적 보완과 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비단 서버 부족, 열람실 부족 등의 시스템적 보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는 19명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려대 46명, 경희대 43명 등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로 19명의 직원 수는 지난 90년도 25명의 비해 도서관 규모가 커졌음에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장오 학술정보서비스팀 과장은 "세분화 돼야 하는 업무들이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집중돼 있어 업무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직원들의 과중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근로장학생의 수를 대폭 증원해 현재 133명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관리하며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임시적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지적이다. 직원 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넘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3면(해설)으로 이어짐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특성화 집중지원 3개 단위 선정

국문·문창, 반도체, 관광경영 학과 ... 향후 5년간 차등 지원

'2004학년도 대학 특성화분야'에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 △반도체과학과 △경주권 관광경영학과가 선정돼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본교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실시된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28개 단위의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1차=연구업적, 연구 과제수, 취업률 ▲2차=특성화, 선도성과 제

안성의 실현성 ▲3차=재정규모, 파급효과, 캠퍼스 균형 발전 등의 평가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3개 단위가 선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 유광호 계장은 "본교의 특성화 분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고 실용적인 활동 계획이 내포돼 선정됐다"고 말했다. 선정된 단위의 사업 계획을 살

펴보면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 =문화예술대학원 석사과정 전공 신설과 한국문화교육센터의 신설 등을 통한 교육 강화 △반도체과학과=국내 연구기관 간 학·협력체제 구축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차세대 나노 반도체 교육·연구 중심의 체계를 구축 △경주권 관광경영학과 =주문식 교육에 따른 관광사업

실무 전문가와의 공동 강의와 국내외 인턴십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관광 전문인 양성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선정된 단위에는 향후 5년간 1년에 최대 2억원이 차등 지원되며 교육·연구 관련 시설 확충과 연구 인력 우선 선발 등의 지원이 병행된다.

또한 이에 따른 세부적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2월 본교 특성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5년 단위로 교내·외 기관에 의뢰해 종합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실적치가 미달되는 단위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공모를 통해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는 등 유연한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교는 앞으로도 10개 내외의 학문분야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 단위들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본교의 강점 분야로 인정받는 일부 학과는 수시로 선정하는 방침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단위의 기획서는 다음달부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3백만을 하나로 ... '대학생 5월 한마당'이 지난 28일부터 3일 간 경희대에서 진행됐다. 특히 28일밤 열린 대동마당에는 구자룡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본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가 민중가요에 맞춰 다채롭게 춤을 췄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김병식 교수 등 외부지원 연구비 45억 획득

본교 김병식(화학) 교수를 비롯한 공과대 11명의 교수들이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2004년도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연구과제에 선정돼 5년간 정부로부터 45억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본교 화학공학과와 식품공학 교수 11명과 태평양 화학, 삼성전자 등 외부 38개 기업체 연구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년간 산

학연 공동 연구 과정을 거쳐 여러 경쟁 대학들의 연구 과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지원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선정된 연구 과제는 '기능성 콜로이드 소재 개발 센터'의 설립으로 본교 내에 콜로이드 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센터를 설립해

중소 기업체의 기술개발에 협조하고 콜로이드 산업 관련 장비들을 대여해 주며 이와 관련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신설된 연구 센터는 올해 산업자원부로부터 1차로 7억원을 지원받아 센터 설립과 관련한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본과 2층에

임시 연구소를 마련한 후 외부 기업체들도 연구 할 수 있는 임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대필동병원의 리모델링 후 그 곳에 연구 공간을 마련해 정식으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본교 양자가능 반도체 연구센터(SRC) 소장 강태원 교수(물리학)가 '백색 조명 대체용 반도체 나노 막대 발광소자'와 관련한 연구 과제를 제출해 미국 공군 산하 미공군연구소(AFOSR)로부터 1년간 2만 5천 달러를 지원받기로 결정됐다.

이사회 주요안건 차기로 상정

학교법인 제199회 이사회가 지난 28일 개최됐으나 중대필동병원 매입 승인 등의 안건은 다음 이사회로 상정됐다. 이날 이사회는 11명의 전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4

시간동안 진행됐으며 △은석 초등 학교 학칙 개정 △교원 해임 △경주 병원 의료장비 시설대여 사업계획 △2004학년도 사학진흥기금 용지에 따른 기채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본교 산하 각급 기관의 결산과 교육용 기본 재산 매입, 즉 중대필동병원의 매입 승인에 관해는 이사회간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 끝에 다음 이사회로 연기됐다. 또한 이사 선임 역시 논의되지 못한 채 다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재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리수

본교로 올라오는 언덕에 개나리가 환하게 피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젠 장미의 계절이다. 장충공원은 연등물결이 화려한 밤을 연출하고 정각원의 오동나무는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 간다. 먼 옛날의 4월, 설레임과 들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닥쳐온 4월의 함성. '3.15선거는 불법이다. 공명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은 물러가라' 노도와 같이 터져나온 학원가의 분노. 종로에서 울지 로에서 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민주주의

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천지를 뒤흔드는 피의 절규, 곧 이어진 무기휴강. 무수한 세월이 흐른 뒤 만해광장의 밤에 초대됐다. 대형 화면에 비치는 턱나뎠스님의 모습과 대면한다. 쥐뿔나무 울타리 너머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등을 내놓고 특별강연에 귀 기울인다. "나는 도착했다. 바로 행복의 집에" 말씀 올릴 때 진달래 꽃잎 파르르 떨고 전신을 휘감는 맑은 기운을 감지한다. "나는 여기 있고 지금 있다. 지금

여기가 다른 곳, 도착한 곳이다"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고 미래에 잡혀있지 않고 다만 여기 있다는 깨달음. 그 말씀에 힘입어 오랜 미망에서 활짝 깨어난다. 턱나뎠스님을 따라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걷기 명상을 시작한다. 한숨, 한숨이 만들어 내는 정념의 힘이, 깨어있는 마음이 엄청난 에너지로서 지친 영혼을 재생시킨다. 봄밤의 정취 무료нок고 성능 좋은 마이크에서는 뜻 생명을 정념으로 인도하

는 '은은한 종소리'. 종소리를 들으며 아득한 날의 핏방 그리움을 잡재운다. 그리움이면서 한이었던 4월을, 턱나뎠스님이 고요한 맑음을, 그리고 종소리와 함께 전신을 휘감던 청량한 기운을 되새긴다. "나는 든든하다. 자유롭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다. 이곳이 정토이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우리 모두 행복의 집에 도착한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변영희 불교대학원 수필가

행복의 집

수습기자 모집광고

가슴 가득 세상을 담고 싶습니까? 바로 '지금' 이 기회입니다

동대신문사에서 제4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V동 1층 동대신문사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알림

이번 제1389호가 2004학년도 1학기 종강호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390호는 2004년 8월 23일자로 발행됩니다.

지면안내

7, 8면 기획

해외체험활동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해외활동이 활발한 원인과 본교 해외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6면 학술

연극영상학과의 역사



문화예술산업을 산실로 자리잡은 본교 연극·영화 영상학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3면 해설

본교 고시지원 실태



본교 고시 준비생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실태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2004학년도 기관업적평가 시행

평가결과따라 차등지원 ... 평가기준 객관성 보완해야

기획인사처(처장=이영환·경제학)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관별 업무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2004학년도 기관업적평가를 시행한다.

본교 장·단기 경영방침과 개별 기관 세부목표간의 연계를 통한 업무집중화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업적평가가 지난 2000년 팀제조직체계개편 이후부터 시행됐으며, 평가집단별 기본목표와 평가기준은 제시된 <표>와 같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교육강화를 위해 평가집단을 기존 단과대에서 학과단위로 세분화했다. 또한 평가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가결과를 개인 인사사고에 반영하고 부서별로 차기년도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의 한 관계자는 "기관평가는 단순히 1년 실적평가가 아니라 향후 기관별 핵심전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개별기관이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분권화에 토대를 둔 제도인 만큼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관업적평가는 이처럼 기관별 목표관리시스템을 정착하고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업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이지만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목표달성이 내부적인 노력 외에도 예산배정이나 국가정책과 경제상황 등 외부적인 변인에 따라 변동 가능할 뿐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지 않은 평가위원이 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 때문이다.

즉, 기관별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실현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군 교학과 평가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의 경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없는 실정이

<표>군별 기본목표 및 평가기준

구분	기관 기본목표
1군(학과)	교육의 내실화 및 연구 활성화
2군(교학과)	행정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
3군(중앙행정부서 및 T.F팀)	행정효율화 및 업무추진성과 제고
4군(부속기관)	행정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 제고
5군(부설연구기관)	연구활성화

기도 하다.

목표설정과정에서 대학경영방침과 해당 부서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뤘는지도 관건이다. 해당 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자칫 업무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 박정순 과장은 "올해는 부서별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으나 2005학년도 평가부터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는 다음해 2월 기관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이 마감된 후

10여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각 군별 평가위원회에서 시행되며, 평가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기관평가위원회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차기년도 사업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평가결과 발표와 시상은 다음해 4월 진행되며 평가보고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기획인사처는 앞으로 기관업적평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서관리효율화 △예산배정 및 집행 △인사사고 △분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생협, 3일 이사회 진행

방중 식당 단축운영·여행사 입점 등 논의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사회가 다음달 3일 오후 3시 상록원 3층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동국관 학생식당 하계방학 휴업 △상록원 교직원식당 배식 시간조정 △교원이사 교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동국관 식당 하계방학 휴업안은 매년 방중 이용자 급감으로 인한 경영손지의 악화로 오는 6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휴업한다는 내용이며, 상록원 교직원식당 운영 시간단축 역시 오후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1시간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교원이사 교체 안건은 흥광원(식품공학) 교원이사의 장기간 해외 연수로 인해 이명훈(식품자원학)교수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한편 생협은 오는 7월 1일 스테

이크아웃 커피점 △여행사를 개점할 예정이다. 테이크아웃 커피점은 해화관 옆 실외 휴게실의 일부 공간에, 여행사는 서점을 일부 축소한 곳에 위치한다. 이와 관련해 생활협동조합 김용문 팀장은 "시대 흐름에 맞춰 커피점과 여행사가 입점하는 것이다"며 "여행사의 경우 학내구성원들의 배낭여행 등 여행에 대한 상담과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생협은 지난 3월 독립법인 출범이후 조합원 가입방식이 자율가입제로 변경됨에 따라 수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신청은 현재 생협에서 직접 받고 있으며 2학기부터 일괄적인 가입신청을 받기 위해 구성원의 자택으로 가입요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황주상 기자
hjsz228@dongguk.edu



'잘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30일 학생처장실에서 '2004 동국해외탐방 장학생 선발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은 1팀씩 △탐방내용 △어학능력 △실현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항목별로 심사했다. 황주상 기자 hjsz228@dongguk.edu

만해광장 바닥보수 공사 다음주부터 사용금지

시설관리팀(팀장=백경선)은 다음달 7일 오후 12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만해광장 바닥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만해광장 사용을 금지한다.

이번 공사는 운동 시설 안전과 미관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만해광장 바닥 고무판 중 훼손된 것만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공사 후 학생들이 농구공대를 함부로 밀고 다니는 일을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어패스제 토익접수

7일부터 19일 까지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영어 패스제에 적용되는 토익시험 접수를 오는 6월 7일부터 19일 까지 받는다.

시험은 오는 6월 19일 해화관 LAB실에서 진행되며 응시료는 5천원이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번에 졸업자 중 패스제 토익 적용자의 8백여 명이 자격요건에 부합

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모집 설명회 1일 다함관서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모집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 달 1일 다함관서 세미나실에서 3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삼성 멤버십의 설립목적, 역사 등 삼성 멤버십에 관한 소개 △지원 자격 △모집 대상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회원이 되었을 시에는 △소프트웨어 연구 지원 △삼성전자 입사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수대의원회 열려

임금인상 등 논의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와 학교측간의 임금협상 결과 △임금 4.5%인상 결정 △2학기부터 교수 임금 군호봉 인정 △3년 이내로 서울 주요 대학 수준으로의 임금 인상 등이 확정됐다. 한편, 매년 진행되는 교수총회가 다음달 18일부터 이틀간 실학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총학, 학자투 관련 토론회 개최

1일 팔정도에서 ... 2일엔 사업경과 보고대회

총학생회(회장=구자룡·야간영문4)가 내일(1일) 불상 앞에서 교수·직원·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의 학내문제 관련한 사안을 다룬 예정이다. 주요 사안으로는 불교병원 교비유용과 대학감사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교비유용 등 학내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해결방안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총학생회는 다음달 2일 이번학기 활동 결과보고 및 평가와 방중 사업 보고대회를 본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총학생회는 학교의 불교병원 교비유용과 관련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민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2학기 수강신청 14일부터 5일간

성적 공시·정정 24일부터

200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이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2학기 수강신청은 △14일=1학년 △15일=2학년 △16일=3·4학년 △17·18일=전학년 순으로 진행되며 오전 8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학내·외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성적 입력은 다음달 17일부터 23일까지며, 성적 공시 및 정

정은 24일부터 5일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학내 컴퓨터 이용시간을 고려해 지난학기에 이어 오전 8시부터 수강 신청시간을 유지하는 것이며, 수강신청기간 컴퓨터 사용량을 고려해 성적 공시일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신청 책자는 오는 9일 이전에 학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성적표 이메일 발송은 오는 7월 1일, 우편은 7월 5일 발송 예정이다.

도서관, 다양한 장서 마련 계획

지정도서제 등 오는 2학기 부터 적극 도입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이 오는 2학기부터 '학과추천도서 제도' '지정도서 제도'를 시행한다.

학과추천도서 제도는 그동안 몇몇 분야에 편중됐던 도서를 다양한 계열에 따라 구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각 단과대별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에게 수시로 회

담도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지정도서 제도'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오는 6월 9일까지 2학기 강의계획서를 접수받아 다음 학기 교재로 사용되는 책 3권씩을 구입할 계획이다.

단, 학과 추천도서와 지정도서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2004-여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

1. 신청 자격 : 재학생
 2. 신청 기간 : 2004. 6. 2(수) 10:00 ~ 6. 4(금) 17:00
 3. 동국 참사랑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가. 일시 : 2004. 6. 19(토) 08:20 ~ 17:00
 나. 장소 : ▶ 특강 - 본교 중앙당 08:20까지 시간임수
 ▶ 현장 체험 학습 - 한사랑 마을·항원(경기도 광주 소재) (※현장 체험 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다. 준비물 : 중식 및 간편한 복장 착용
 ※ 단, 예비교육은 최초 봉사 활동 신청시 이수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회 이상만 이수하면 됨.
 4. 봉사활동 기간 : 2004. 6. 22(화) ~ 2004. 8. 28(토)
 5. 봉사활동 방법 :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봉사활동 안내 자료 : 5월 28일부터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랑봉사단에 비치.
 6. 봉사활동 대상 기관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외 170여개 기관
 7.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 및 성적처리
 가. 학점신청 방법 : 재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사회봉사학점신청(6월2일 10:00 ~ 4일 17:00)
 ※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선택순 마감
 나. 평가방법 : Pass 또는 Fail
 다. 성적평가
 (1) 학점 인정 : 여름 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2) 학점인정시기 : ▶ 여름학기·가을학기 활동자(2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 반영)
 ▶ 겨울학기·봄학기 활동자(1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 반영)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됨.
 ■ 특 점 :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시 시간인정/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출장수여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봉사단 홈페이지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랑봉사단

동국참사랑봉사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

1. 대상자 : 2004년 8월 졸업예정인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자
 2. 자격
 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평생교육과목 이수학점이 20학점이상(평생교육실습 포함)인 자료서, 평균성적이 80점이상인 자.
 3. 접수기간 : 2004. 6. 14(월) ~ 6. 16(수)
 4.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소정양식), 호적초본 1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

사범대학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0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1. 대상자 : 200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2. 자격
 가.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나. 사범대학생 : 교직과목 22학점, 전공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다.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2)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료,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
 3. 접수기간 : 2004. 6. 7(월) ~ 6. 11(금)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가. 사범대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나.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 사범대학 교학과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교직원내 게시관에서 출력 가능함.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본교 고시생 지원환경 실태 분석

분위기 조성 통한 경쟁력 제고해야

분야별 고시반 분리 및 인력·공간확충 필요

각 대학의 국가고시 합격생 수가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지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권 대학들은 고시와 관련된 학과를 특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교 국가고시 합격생 수는 타대학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본교의 고시지원실태와 문제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본교 고시준비반은 고시지도위원회(위원장=윤현보·전자공학) 아래 △사법시험반 △행정·외무·언론사시험반 △번리사 기술고시반 △공인회계사(CPA)반으로 구성돼 있다.

고시준비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사법시험반=1차합격자 등록금 전액 면제, 매달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 55명에게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 △행정·외무·언론

사시험반=1차합격자 등록금 전액 면제, 일반 준비생들에게 성적순으로 등록금의 70% 또는 35%의 차등 감면(43명까지) △공인회계사반=1차합격자 등록금 전액 면제, 일반준비생들에게 성적순으로 등록금의 70% 또는 35% 차등 감면(40명까지)이다.

하지만 장학혜택 외에 전체적인 고시준비생 지원예산은 넉넉하지 못하다. 고시준비생들에게 활발한 지원을 하는 타대의 경우 연간 예산이 10억에 이르는 반면 본교는 △사법시험반=9천만원 △행정·외무·언론사시험반=7천만원 정도로 총 1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행정·외무·언론사시험반의 경우 전문강사의 특강 한번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홍(경찰행정학 석사과정) 계산고시학사 조교는 “주어진 예산으로는 유명한 강사의 비디오 녹화 특강도 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재정운용상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는 타대학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고시지원 예산



열람실에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칸이로 종이를 이용해 막아놓은 모습.

이 예년보다 늘어났고, 고시지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책정된 예산보다 더 집행하는 등 나름대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시준비반 운영에 투자해 온 한양대의 경우 행정고시반이 분리돼 있으며 각종 특강이나 모의고사 및 평가시험을 실시, 개별 지도교수와 조교의 지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언론사시험반은 4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2개반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모교 출신 언론계 선배 특강 및 지도교수와와의 간담회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결국 본교도 지원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고시촌 못지 않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계산고시학사 입실에 따른 강의 제공 등의 혜택을 높임으로써 고시준비생들 사이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해 보인다.

지속적인 전담관리자 없어

고시준비생들을 지원해주는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사법시험반의 경우 법대 지도교수 한 명과 조교가 두명이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체계적인 관리자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지원금이 나와도 그것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지도해 줄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도교수와 조교가 자주 바뀌어서 행정적인 공백뿐만 아니라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있다.

행정·외무·언론사시험반은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현재 세 가지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수가 한 명이며 조교가 두 명뿐이다.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는 한 학생은 언론사시험반 조교와 지도교수가 모두 경찰행정학과 전공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시관련 상담이나 준비 등은 고시준비생들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건국대의 경우 언론사시험반을

위해 실제로 신문사에 입사한 모교출신 선배를 직원으로 채용한 후 준비생들의 상담과 시험 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모범적인 케이스다.

이에 본교도 언론계에 진출해있는 동문들을 초빙하거나 지도교수 및 조교인력을 확보해 언론사시험반을 분리시켜 나가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진출을 함께 모색해주는 인력확보 등의 실질적인 제도가 학교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치상 소음문제 해결 안 돼

계산고시학사의 위치문제와 공간부족도 간과할 수 없다. 문화행사가 자주 열리는 학생회관과 사법대 맞은편에 위치함에 따라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소음에 불편을 느낄 때가 허다한 것이다.

계산고시학사에 입실해 있는 한 학생은 “소음을 막기 위해 이중창을 했지만 역부족이라며 요즘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계산고시학사 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 책상만 겨우 들어갈 정도며 학생들 개개인간 공간이 자신의 책상너비를 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간확충이나 계산고시학사 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도서관 리모델링 후 마련되는 열람실을 일정부분 고시준비생들에게 할애하거나, 시험기간에만 개방하는 중앙도서관 임시열람실 공간을 이들에게 마련해주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본교 구성원들도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 수가 적다는 것을 비난만 할 때가 아니다. 이에 앞서 학교의 애김없는 투자와 환경 조성, 학생들의 의지 제고 등 현재 산재해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사설

복지 우선하는 생협을 바란다

생협이 점차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영업손실을 이유로 방학중에 동국관식당을 휴업하고 교직원식당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안건이 생협이사회에 상정된 것이다. 물론 이사회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통과될 경우 교직원식당에서 저녁식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방중에는 문화관 그릴과 상록원 식당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매점과 식당의 운영시간 역시 늘 학생들의 불만대상이다. 개점시간이 오전 8시 30분이기 때문에 0.5교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하기 어렵고, 상록원 폐점시간도 오후 7시 30분으로 대다수 식당의 영업시간보다 훨씬 이르다. 특히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시험기간에도 연장영업 등의 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업손실을 이유로 들지만 생협사업 전체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추진할 수는 없는지 의문이다.

교내서점을 축소하고 여행사를 임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내의 유일한 서점이지만 교재와 부교재가 상당수 비치되지 않아 대형서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축소할 정도로 여행사가 절실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복지사업을 하나 하나 내실있게 하기보다 점점 외형적인 확장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고 독립법인으로 출범된 후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듯해 더욱 우려된다. 물론 생협은 영업이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지급과 귀향버스사업 운영 등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잉여금 일부를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논리는 생협의 근본 운영방침에 적절하지 의문이다.

생협은 학내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출자로 설립된 조직인 만큼 시장논리에 따라 손익을 고려하기보다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성지영 tjdw11@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고재석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구본철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최성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57

동약로

일단 생략



“어떤 전공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복수전공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두 학생이 전공결정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선택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전공관련 상담이나 문의할 곳이 없어 전공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과대와 경영대 등 일부 단과대는 전공결정 시기가 두번 주어진다. 이에 따라 1학년 2학기 때 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2학년생들은 이번엔 전공을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교과과는 전공설명회를 학과 자율에 맡기고 있고 학과 역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번 학기에 이에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는 학과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사회과학부의 7개학과 중 전공설명회를 진행한 학과는 한 학과에 그쳤다. 또한 전공설명회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관심 있는 학과마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했다.

“전공 결정이요? 혼자서 고민하거나 선배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결국 전문적인 상담을 거치지 못한 채 무작정 인기학과를 지원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본래 학부제는 진로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전공을 체험한 뒤 적성에 맞는 전공을 고르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제도다.

그러나 만약 지금과 같이 학과에 대한 지식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 폭넓은 전공 선택기회를 부여한다는 학부제의 기본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전공결정은 학생들의 진로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각 학과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전달을 위해 교과과와 학생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벗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설문진 기자
dbswls@dongguk.edu

동문칼럼

취업, 바로 알고 준비하자



김규용
인크루트 직원
경영대 광고 99졸

산업구조가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하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도 크게 달라졌다.
골목산업 기반의 과거 70~80년대 유교중심적 사회에서 새마을운동과 산업화로 진행하던 시기에는 '시키면 무조건 한다' 식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진 인재가 선호되었다. 이후 90년대에는 경제개발이 정착되고 평생 고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이러한 인재보다는 치

열한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국제화, 정보화 능력은 물론 창의성, 전문성, 도전정신 등과 함께, 어학실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에 다양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인재상의 공통사항은 실무경험이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적성에 따른 현장 경험을 가능한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인턴십, 공모전 등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맞는 직업으로 평생을 일해도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진로를 결정한다면 그 다음 전략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년동안 인크루트라는 취업전문회사에 다니면서 수많은 구직자를 보면서 얻은 취업 비

결은 바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선행배 등과 같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회사에 자리가 났을 때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동호회 활동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각 취업 사이트들의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 관심 있는 직종에 지원하 는 사람들끼리 온라인 상에서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절차, 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물론 면접시 질문사항, 복리후생, 급여 수준 등의 기업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인크루트와 같은 인터넷 채용 전문회사에 자신이 관심 있는 업체와 직무를 정해 해당 직무에 맞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해 놓는다면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접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

다. 자신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돋보일 수 있도록 PR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뽑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업무적 자질과 능력, 경험에 비추어 해당 업무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채용 후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명료하게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평소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것과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인사 담당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입 사원의 실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좁은 취업문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위한 작은배려부터 실천하자

본교 주차장은 평소 이용차량에 비해 공간이 매우 협소한 편이다.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은 어김없이 대운동장이 주차장이 된다.

또한 동국관 앞 통일광장도 '광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동차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두세 곳 정도 빈 곳을 발견 할 수 있다. 바로 장애인 주차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주차장에 언제부터인가 장애인등록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유명 브랜드의 외제차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주변에 다른 주차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단지 그 공간은 장애인 주차공간보다 협소하고 주차하기 불편한 곳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지성인다운 행동이 아니다. 우리보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조금 더 크고 넓게 만들어준 장애인 주차장을 단지 자신이 주차하기

편하고 자동차에 흡입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장애인인 버젓이 주차를 한다는 것이 말이다.

만약 장애인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비장애인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게 주차를 하겠는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이들의 권리를 간과해도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특히 여러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함께 투쟁하는 대학인만큼 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성인이라고 배워왔다.

때문에 이제 말로만 그들을 돕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같은 학내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남겨두는 자그마한 배려부터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애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송기백(사과대 사회과학부2)

현재에 충실하는 열정적 삶 살고 싶어

하루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 전날 죽은 자의 간절함을 생각해 보라.
1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50년 만에 상봉한 남북한 이산가족의 애절함을 생각해 보라.

1분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둘째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의 아쉬움을 생각해 보라.
1초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복잡한 아침 지하철을 타지 못한 샐러리맨의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라.

0.1초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화장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의 절박함을 생각해 보라.
0.01초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2등을 한 100m 달리기 선수의 비애를 생각해 보라.

내가 살아가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루 하루를 의미없이 살아갈 때 생각나는 구절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8만6천400원

(60초×60분×24시간×1원)이 똑같이 주워진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수양되며, 인생이 운택해지고, 운명이 바뀌게 된다.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시간의 소중함 또한 모른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흘러간 시간 속의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워한다.

힘들었던 시간도 즐거웠던 시간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두 아련한 추억이 되어 우리들의 머릿속에 회상되기 마련이다.
그 추억이 어땠는지는 모두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소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난 현재에 충실하며 모든 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다.

최종혁(문과대 일문1)

여행을 떠나라

이제 곧 여름이 온다. 그리고 여름방학도 온다. 난 매년 여름방학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 가끔씩 무언가 고민이 있을 때, 외로울 때, 반복된 일정 속에 답답할 때면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떠난다.

술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은 싫다. 그리고 사람 북적대는 여행도 싫다. 때문에 나의 여행은 함께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

혼자 혹은 한 둘 친구로 구성된다. 누구는 외롭겠다고 말하지만 혼자하는 여행을 마치고 올 때면 나는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잠시 복잡한 일상을 잊고 조용하고 평온한 공간에서 한참동안 나의 복잡한 머리 속에 있는 생각들과 논쟁을 펼치고 올 때면 말이다.

혼자하는 여행이 두려울 수도 있다. '외롭지는 않을까' 좋은 경험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들로 말이다. 어떤 경우에는 여행가다 나와 같이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만나 여행동료로 삼은 적도 있다. 이때 서로 고민도 들어주고 했던 좋은 경험도 있다.

물론 좋은 여행이 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좋은 여행이 되지 못했다면 '다음기회에 보자'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선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떠나보자.

지금 내 친구들을 보면 일찍 사회에 나가 깨끗하지 못한 사회에 상처를 받은 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이 그리고 무리한 대학생활에 싫증을 느낀 이들이 있다. 난 이들에게 과감하게 추천해준다. 여행을 가보라고.

이종규(불교대2)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 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소나기
새로 꾸려진 17대 국회, 이렇게 하길 바란다
△국보법부터 철폐하라~!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길...
△국민 연금 돌려주요
△친일과 차단
△비리척결!!! 대통령님아 국회의원님아 말로만 이제 그만좀 하지??
△국회는 싸움터가 아니다.
△하루 한번 재래시장을 꼭 가봐라
△국회 생중계 TV가 생기니,
조심 좀 하겠지?
△국회안에서 싸우지 좀 마셔~!
누가 배울까 무섭다.
△제발 당파싸움만 하지말고 미뤄둔 현안 과제나 제대로 처리하길 바란다.
△새만금 간척사업 하지 마세요.
어민들이 읍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법안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프로젝트 열심하.
△성현아~ 공부 좀 열심히 하자.
△우리 모두 공부좀 하자~!
△임용고사 준비하는 국어교육과 4학년 동기들 모두 화이팅~!
-국교이모
△생자와 배지희 짝!
△오빠! 4학년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SIERRA
△우리 모두 임용고사 대박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요~
-수교과 윤자
△서! 너구리! 공부 좀 해야지? 정신차릴 때가 됐잖니.
△지리교육론 발표 열심히 해서 모두 A+ 맞으시다
-B조
수고하셨습니다
△DSP 1,2차 프로젝트 끝낸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소과 3학년 과제전 준비 수고합시다!!
△불교도 주간, 제등행렬, 불교대생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씨 그동안 힘든지 참나 수고했어!
△홍정선양이 동국대에서 제일 이쁜 것을 축하합니다.
△백광현이 동국대에서 가장 멋진 것을 축하합니다.
△유스호스텔 24회 창립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겠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4기 키크
△순영아 4박 5일동안 수고했어. 내맘 알지?
-S.H
△원희 수고했다.
△에비군훈원 수고했습니다.
-북학생
△지난 4주 우리 정말 수고한 것 같아. 앞으로 COOL 한 반학을.
-MIN
△민희! 수고 했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
△단풍엔 관곳 한마당 수고하셨습니다.
-신우재
△장오야 연습하느라 수고했다
△남희누나 그동안 숨어사느라 수고했어요
그리고...
△지희~ 언제나 너의 자린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
-45h
△너의 fresh한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연해야
-토목과 평식오빠가
△창윤아 토익 열심히 해라 화이팅!!
-98 윤기
△나에게도 축복 좀 주오.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소
-페인탈출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있길.. 자유롭게 살고 싶다. but.
-황도 12공
△신속, 윤희! 기말고사 잘 치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느거 알지?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5/31) 소고기명면탕 (1800) 순두부찌개 (1600) 된장찌개 (3200)
제육김치덮밥 (1800) 오징어불고기 (2000) 버섯전골 (3500)
치킨샐러드 (2000) 열무비빔밥 (1800) 누치볶음 (3800)
화 (6/1) 감자수제비 (1600) 닭가장 (1800) 된장찌개 (3200)
오징어볶음밥 (1800) 제육볶음 (1800) 해물찌개 (3800)
피자돈가스 (2500) 탕수만두 (1800) 산채비빔밥 (3500)
수 (6/2) 양지탕 (1800) 설렁탕 (1800) 된장찌개 (3200)
소고기탕수 (2000) 닭꼬치구이 (1800) 김치불고기볶음 (3500)
김치볶음밥 (1800) 불고기비빔밥 (2000) 곶감어무조림 (3500)
목 (6/3) 어묵우동 (1800) 감자탕 (1800) 된장찌개 (3200)
버섯불고기 (2000) 누치볶음 (2200) 제육쌈밥 (3800)
청포비빔밥 (1800) 모듬볶음밥 (1800) 카레라이스 (3200)
금 (6/4) 콩나물국밥 (1800) 쇠고기국 (1800) 된장찌개 (3200)
닭갈비 (2000) 닭강정 (2000) 스키게티 (3500)
오무라이스 (1800) 궁중떡볶이 (2000) 닭갈비 (3500)
금주의 추천메뉴
피자돈가스(동국관 화요일 식사)
돈가스안에 모짜렐라치즈를 넣어 기름에 튀겨낸 바삭함과 쫄쫄한 치즈 질감이 어우러져 있다. 양송이와 양파를 넣어 만든 소스는 그 맛이 일품이라 부족한 돈가스 양을 넉넉하게 해주고 샐러드는 비타민섭취와 느끼할 수 있는 튀김음식을 한층 부드럽게 해준다.

달하나 천강에



노완섭
생자대 식품공학과 교수

가정은 인간 삶의 시작이며 끝이다. 세상만사 모든 일들은 가정으로부터 생겨나고 가정에서 해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했다. 동서고금, 남

가정의 달을 보내며

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음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듯이 자신을 닦고 가정을 반듯하고 가지런하게 한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상황을 곱씹어 보자. 집안을 다스리려는 것만 자기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설쳐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인간교육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며 인격형성도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오늘에 와서야 공명불이 되고 있기에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한 것이 아닌가? 모를

지기 각 가정들이 건전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해질 수 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가정이 인간만의 구심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는 존재가 이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부모 즉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요, 내가 장성하여 결혼을 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 2세가 태어나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돌고 도는 세상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인간 삶의 영속성을 생각해 보면 가정이란 분명 하늘이 정해준 인간 삶의 기본이며 바탕임을 헛사리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정, 아니 나의 가정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그 진리는 간단하다. 항

상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말하고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의 편에서, 자식은 부모의 위치에서, 형은 아우가 되어 보고, 아우는 형이 되어 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시절을 생각해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뜻밖에 모든 일들은 잘 풀려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의 영원한 안식처요 몸과 마음의 영원한 고향, 그곳이 바로 나의 부모, 아내, 자식, 형제자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가정이다. 가정의 달 5월! 아니 일년 열두 달 모두가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하겠다.

미아리

발칙한 상상

▲6월부터 제17대 정기국회가 개원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냉담함에 가까운 듯하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민생법안을 뒷짐으로 미룬 채 당리당락에 따라 국회를 긴급 소집하거나 파행하고, 나라 최고의결기관인 국회가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한 횡수보다 불참한 경우가 더 많았으니, 어찌 대다수 시민들이 현실정치에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난히 본관 앞에 고급승용차가 즐비했던 지난 28일, 학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학교법인 이사회가 몇 달만에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종대필동병원 매입 승인과 이사선임, 결산심의 등 큼직한 안건이 상정돼 있어 학내구성원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모처럼 11명의 이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4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이사회들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주요안건들은 승인되지 못한 채 다음 이사회로 넘어갔다.

▲물론 이같은 상황은 드문 경우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번 이사회처럼 모든 이사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논의되는 경우는 근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사들의 개인사정 때문에 정족수미달로 무산될 때가 빈번했고 회의가 성사되더라도 이사들간의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 없는 이사회가 되기 일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 임용과 불교병원정관개정 등 주요현안들이 몇 달 동안 계류돼 학교행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역시 덕망을 갖춘 인사라고는 하지만 종단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인사들이 대부분이니 그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힘자랑' 하고 본회의 참석률이 저조했던 국회의원들은 상당수 낙선대상에 포함됐고 지난 총선에서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때문인지 학내구성원에게는 법인 이사들을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거나, 누구도 그들을 '감히' 평가하려고 나서지 않는다.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나 답답할 노릇이다.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지상논쟁을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제한한다

“인권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 위한 개혁”

얼마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20대 초반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나 역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상태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는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번 판결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든 개개인의 인권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관행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해선 안 된다.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무시해선 안 된다. 현재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 기피자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해왔다. 물론 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병역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일부에선 이번 판결이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모든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병역거부권을 주지라는 의견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병역 대신에 대체복무를 시행하자는 말이다. 군복무와 상응하는 시간을 사회봉사시간으로 채우도록 하는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법안을 세우면 된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사람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상응한 법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인 것이다. 또한 병역거부권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좀 더 속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에 대한 대체법안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전민기(사과대 복학4)

“분단국인 현실 대체복무는 시기상조”

지난 21일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내용 중 최초로 양심의 자유를 천부인권으로 선언한 것. 병역거부의 결정과정과 결정 이후의 사회활동을 평가하여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한 것.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촉구한 것 등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나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보았기보다는 양심의 자유에만 편향적으로 쏠려있다. 개인의 인권, 특히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단이거주의자들의 논리다. 대한민국 남성이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나라를 지키기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했고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개인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치국가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양심을 빌미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군대 가는 것을 바기는 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군대를 가기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문신을 하고, 연골을 깎아내고, 심지어 손가락을 잘라내는 일까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군복무 면제 사유 중

‘개인의 양심에 따른’이란 항목이 들어 가면 병역 기피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양심에 어긋나서 군대를 거부하고 복무를 면제받는다. 이것이 소수의 인권존중이라면 군대에 가는 다수의 인권은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 우리는 분단국이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되었을 뿐인 지금, 대체복무제 실시는 시기상조다. 물론 같은 분단국이지만 대만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하지만 군복무인원이 초과되어 군복무자 자체를 줄이고 있는 대만과 우리는 엄연히 다르다. 남쪽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고 군 인력이 줄어드는 이때 대체복무를 실시하면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다. 하지만 그러한 민주주의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맹목적인 내리사랑이 아니라 상호 이해에 의해 성립되는 하나의 커다란 약속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러한 약속을 위협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허울 좋은 논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수(사과대 사회과학부2)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맛있는 해법 제시 아쉬워 다각도적 문제접근 해야

동대신문 제1388호는 도서관 관련 기획기사, 대동제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1면 도서관 기사를 보면 기사는 장서보유가 불교화 관련 서적을 제외하고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예산증액 및 도서보관공간 확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은 구도서관 시절부터 자주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제 일반적인 논리로 해법을 찾는 것보다 한정된 자원을 학교 교육방향에 맞춰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등의 세련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해법이 예산증액이라는 맛있는 귀결은 기자의 좀더 성실한 취재력과 문제에 대한 다각도적인 접근을 아쉽게 하는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인터뷰라든지 기고 등을 연계하여 1면에 기획한 편집의도를 심본 살리는 것이 좋

지 않았을까 한다. 6면에 게재한 '동국대학교가 3대 사학으로 거듭나는 길'을 도서관 기획기사와 연계하여 기고해 받았더라면 좀더 짜임새 있는 기획기사가 되었을 것이다. 대동제 관련 기사도 도서관 관련 기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에 대한 다른 각도의 문제 접근이 아쉬웠다. 대학신문은 매 해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제에 대해 기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아이티의 빈곤에 시달리고 문제의 실태를 풀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도 수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사는 기사를 발로 써야 한다. 대학신문 기사는 더욱더 발로 기사를 써야 한다. 현상의 고인물이 녹아들어가지 않는 맛있는 기사는 결국 독자에게 의문당한다는 것을 기자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학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슴에 품고 냉철한 판단력을 배양한 이성으로 일신우일신하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김영훈(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과장)

동약게시판

- 학생복지위원회**
방학 특강접수
대상 : 토익, 한자, 컴퓨터
접수 : 6월 31일까지
접수처 : 중앙도서관, 구내서점
특강기간 : 6월 28일~8월 20일
- 사회과학부 축제**
오늘(31일)부터 이틀간
반 대항 피구, 농구, 소모임 공연
- 공무원시험 설명회**
오늘(31일) 오후 3시~6시
학림관 소강당
표경희(취업전문 컨설턴트)
- 여성취업특강**
오늘(31일) 오후 6시~9시
학림관 소강당
이미숙(이화여대 취업 컨설턴트)
- 기간제보관함사용**
신청접수
대상 :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6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사용기간 : 6월 1일~8월 31일
300함 한정
중앙도서관
월 3,000원

- 생명·화학공학과 초청세미나**
제목 : Biomimetic Materials for Cellular/Tissue Engineering Applications: from Artificial Organs to Micro-Patterned Living Cell Arrays
연사 Heungsoo Sin Ph.D.
6월 3일 오전 11시
원흥관 2층 E217강의실
- 법대 2003학년도 후기 졸업논문제출**
주제제출 : 6월 4일 오후 5시까지
논문제출 : 6월 25일 오후 5시까지
접수 : 법대교학과
- 동국대학교 개교 98주년 기념**
기증유물특별전
6월 11일까지
박물관 제 2전시실
- CNN/AFN 청취 공개강의**
오후 6시~8시
6월 3일까지
해화관 G204호
강사 이수영
- 교원임용고사대비**
하계교육학 특강 신청
6월1일~25일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150,000원
문의 : 02-3290-1638
- 2004 생물정보학 심포지엄**
6월 4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 C홀
- 지리교육과 연계행사**
6월 24일~7월 4일
울릉도
- 제18회 Fearless Dawn 정기공연**
6월 1일 오후6시
학림관 소강당
- 강릉고·강릉여고 동문회**
오늘(31일) 오후 6시
원두막
016-759-5725
- 생물학과 채집여행**
6월 24일~28일
장소미정
-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대상자 모집**
대상 :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6월 11일까지
접수 : 취업 지원팀
선착순 100명 모집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가로열쇠**
- 2. 일정 기간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것.
- 5. 기획심사팀에서 학내기관을 5개군으로 나눠 재정운영, 행정효율화 등 매년 이것을 평가. ○○○○평가.
- 7. 본교 사회학과 교수. 이번호 '사상가이야기' 필자.
- 9. 본교 예술대 중 한 학과로 역사가 깊고 관련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능인들이 많이 배출함. ○○양상학과.
- 10. 본교 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건물. ○○ 고시 학사.
- 11. 요즘 양심적 거부 인정 판결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13. 본교 장학제도의 하나로 3명이 한팀을 이뤄 해외탐방을 하고 오는데 드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 줌. 동국 해외 ○○○○.

세로열쇠

1.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열람실과 자료실 등으로 이뤄진 곳. 본지 종합면 기획 기사 대상.
3. 헌법, 영어, 국제법 등을 시험보는 국가고시 중 하나로 합격후 연수기간을 거치면 외교관이 된다.
4. 본교 사범대학 건물.
5.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놓음. '본교에 발전기금을 ○○했다'고 함.
6. 플라스틱의 이상 증식으로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현상. 바닷물이 부패하기 때문에 어패류가 크게 해를 입음.
8. 기계의 설계·제작·성능·사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 본교 공과대학에도 해당학과가 있음.
9. 관계되는 범위. 세력이 미치는 범위.
11. 지난달 총학생회가 불교 ○○에 대한 교비 유용을 주장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12. 동아리방을 즐겨 흔히 이렇게 말함.

1388호 정답

지	정	도	서	제
백	상	학	자	매
연	쟁	술	대	학
론	불	교	생	태
고	류	백	학	
시	금	치	산	학

당첨자
유제동(예산팀 과장)
손형욱(행정4)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호 정답과 당첨자는 8월 23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문화산업 이끄는 인재양성의 산실

연극·영화영상산업 주도할 예술인력 양성에 노력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불린다. 광의적 의미에서 문화는 우리의 생활이나 행동양식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무형의 어떤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 예술 창작의 토대가 되는 것이며 예술은 문화가 가치화, 실체화 되는 분야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의 시대에는 문화가 개인 생활의 중심이며,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고, 국가경제력 창출의 기반이 된다. 21세기의 문화는 경제를 주도할 무형적 측면에 부가가치를 두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90년대 말부터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시작된 한류열풍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나아가 한국 상품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는 외교관이 되었다. 이제 문화는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전환의 시점에서, 대학은 문화 산



유진진



김무생



김재형



최민식

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심에 서있다.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사람이며, 대학은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인을 길러내는 산실이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훌륭한 자원이라도 문화산업 콘텐츠로 만들려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산업에 중심적 역할 수행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연극과 영화, 디지털 영상문화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 산업 분야에서 우리 동국대학교 연극 영화영상학과는 단연 그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독자적인 존재가 되어 온 것이라 감히 단정할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얼마 전 열린 제57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올드 보이'가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에서의 열연으로 영화계 기간동안 강력한 남우주연상 후보로 언론에 거론됐었던 배우 '최민식'이 우리학교 연극학과 동문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가슴이 뿌듯할 것이다.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액이 5년 전에 비해 5배나 급증하고 영화의 편당 가격도 아시아 최고 수준인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영화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명배우들이 그 지역에서 팬 층을 확보해 가면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오른 소수의 스타 배우들 중 다수가 바로 우리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연극 영화영상학과가 이들이 알려진 배우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유구한 역사 속 빛나는 인물 발굴

문화예술과 산업 분야에서 항상 중심에 있어왔다는 연극·영화영상학과와 자부심의 근간은 6·25전쟁 이후 대학에서의 본격적인 연극교육의 장을 열기위해 국내 대학 중에서 최초로 설립된 연극학과이다.

또한 국내 대학 최초의 소극장 설립과 국내 대학 최초의 연극학술지 '연극학보'를 창간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교육적 전통위에서 발전해 왔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것들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던 60년대에, 한국 신극사의 거목인 동량 유진진 선생을 비롯하여 한국 연극학계의 초석인 장한기 교수, 사실주의극의 기반을 다진 이해랑, 이진순 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초기 교수진들은 국내 연극교육의 산실역할을 했다.

연극학과가 설립되던 시기는 사회 전반이 절대 빈곤의 시기였고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연극이나 영화 같은 문화예술은 일반인들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재능과 정이 기질로 뭉친 초기의 선배들은 예술에 대한 열의와 신념 하나만으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재치를 발휘, 연극 영상학부만의 독특한 전통을 세웠다. 김기일, 이성웅, 장육제, 정진, 이일웅, 김무생 등의 배우들과 영화계 최고의 원로이자 한국영화의 대부인 유현목 감독, 드라마 제작의 하강일, 김재형 PD, 영화전문 기획자 김갑의, 희곡학 및 한국전통연희 분야의 원로인 김홍우 교수 등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인으로 활동했으며 또한 활동하고 있다.

당시 연극영상학부는 1962년에 연극영화학과로 명칭이 바뀌고 1996년부터 시행된 학부제 안에서 연극학과와 영화영상학과로 분리되어 있다.

현재는 각과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며 문화 예술계 전반에서 국내 최정상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세계문화예술에 주역 양성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연극 뿐 아니라 영상, 방송, 광고 같은 현대사회에 적합한 전천후 다매체형 전문 문화인력 양성에 주력하며 세계 문화예술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인재들의 상당수가 현재 우리학부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이다.

학부제 시행이후 임시전형에서 실기교사를 배제하면서 동국대학교의 전체 수석은 영화영상학과에서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우리학과는, 영상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을 배출해 내고 그 인력들은 완성도 높은 영상 작품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내외의 여러 분야의 영상 예술 산업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00년도에 신설된 특성화된 전문대학원과의 연계성은 21세기의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영화영상문화를 대비하는 영화영상학과와 준비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차세대 한국 경제를 이끌 산업으로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이 중시되면서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는 현재 21세기 영화영상산업을 주도해갈 미래형 OSMU(One-Source Multi-Use) 산업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으로 가장 각광받는 곳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예술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 인적자원들이 탄생하고 머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는 창조적인 예술 인력을 비롯해 전문 예술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내 문화산업의 주도적인 역할과 세계속의 문화 선구자 역할을 끊임 없이 개척하고 수행해 나갈 것이다.

김정환

영상정보통신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조 동 기 사과대 사회학과 교수

사상가 이야기



고전사회학 재해석한 앤터니 기든스

앤터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현대 사회학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회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봉직하다 현재는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의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초기 저작은 주로 사회학의 3대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맑스(K. Marx), 베버(M. Weber), 뒤르켐(E. Durkheim)의 업적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종합을 시도한 것이었다. 첫 번째 대표 저작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을 시작으로, 각 거장에 대한 독립적인 저작을 통해 고전사회학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함으로써 현대사회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 밖에도 근대 국가의 폭력성, 친밀감, 위험사회 등과 같은 현대성(modernity)과 관련된 쟁점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좌파와 우파의 한계를 넘어 정치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제3의 길'을 주장하여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다.

기든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역설한 밀즈(C.W. Mills)와 더불어 필자의 초기 학문적 지향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학자이다.

주로 현실 사회의 모순에 관한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던 대학 초년생 시절, 필자는 당시 외국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얇은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는데 바로 기든스의 '비판 사회학개론'이었다.

현실문제에 대한 전공의 부적합성에 대해 고민하던 필자에게 이 저작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사회학의 기본 가치를 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기든스와의 보다 본격적인 만남은 고학년이 되어 사회학이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사회학이론은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개인주의 전통과 사회체계의 영향을 강조하는 구조주의 전통이 대립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기든스는 구조화(structuration)라는 독창적인 사회이론을 통해 두 전통의 접목을 추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조화는 개인의 실천적 활동을 통해 행위가 유형화되고 구조가 만들어지는 사회체계의 재생산 조건을 지칭하는데, 이를 통해 행위자로서의 개인과 사회체계는 독립된 두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중성(duality)으로 통합된다.

기든스에 따르면 사회연구는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적 총체성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탐구해야 되며, 이는 결국 자신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의 교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통찰력에 바탕을 둔 기든스의 저작은 비단 사회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정치학 등과 같은 인문사회 분야 학생이라면 누구나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세계화와 위험사회의 진전이라는 오늘날의 맥락에서, 현대성의 모순과 상충성,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공적·사적 영역간의 상승효과를 추구하는 '제3의 길' 정치 등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 자본주의와 현대
사회이론 '제3의
길' 등 저술

학술단신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춘계학술세미나

오는 3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진행

오는 6월 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춘계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4·15총선의 사회과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4·15총선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자민주주의와 4·15총선'이라는 주제로 김관규(신문방송학) 교수와 '4·15총선과 한국 정치'라는 주제로 박명호(정치외교학) 교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심익섭(행정학)교수, 박순성(북한학)교수, 박대경(경찰행정학)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학원 조소과 작품전시회 개최

내일부터 4일간 총 5개 설치작품 전시

대학원 조소과 작품 전시회가 내일(1일)부터 4일간 본교 수영장 2층에 마련된 오픈 공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조소과에서 매년 학생들의 작품 전시와 소개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원 조소과 금문당(조소전공) 원생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가 시작되는 첫날에는 외부인들을 초청해 작품 소개와 질의를 받는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회 서울 환경회의'를 주제로 한 설치 작품이 메인으로 공개 될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 외에도 '지구-에너지의 비전은 무엇인가' 등 총 5개의 조소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첫날 열리는 작품 설명 세미나는 오후 5시 30분에 전시 장소에서 진행되며 세미나가 끝난 시기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전시회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해외체험 목적을 세우자!

아르바이트, 다이어트 등 방학이 다가오면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이 중 반드시 다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중 하나가 해외체험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체험을 취업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입사지원서에는 해외연수 등 해외활동경험을 기재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력서를 한 줄이라도 더 채우려면 해외 체험은 필수코스로서 여겨지고 남들보다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너도 나도 무작정 해외연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해외체험은 독립심을 키우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는 기본취지를 벗어나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로 국내학위보다 국외학위를 더 우대하는 현실이 있다. 기아, 현대 등 대기업들은 하버드, 듀크 등 미국 명문대를 순회 방문하면서까지 해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고,

대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4월 교수신문이 전국 173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상반기 신입교수 임용 결과, 박사학위 취득국가 순위에서 미국이 박사학위를 취득해 1위로 나타났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89명으로 3위를 기록한 것을 볼 때 결국 기업과 대학 모두 해외유학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의식 바탕한 해외체험활동

어느새 해외체험만 다녀오면 엘리트로 인정받던 시기는 지나갔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동국대해외탐방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을 다녀온 송민규(정보시스템4) 군은 "이론적으로만 익힌 내용을 현장 학습을 통해 몸소 체험하고자 탐방을 가게 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해외체험은 어학연수에만 초점을 맞

추던 과거와 달리 조금씩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취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봉사, 체험, 어학 등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워킹 홀리데이와 해외 자원봉사 등을 들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이하 WH)는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긴다는 뜻으로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4개국과 WH프로그램을 공유 중이다. 4개국 모두 WH비자는 평생 1번만 지급되고 체류기간은 1년이다.

또한 해외자원봉사는 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으로 나가 활동하고 있다. 대학마다 특색을 살려 진행되기도 하는데 원광대의 경우 매년 의료봉사단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으며 본교의 경우 참사랑봉사단을 통해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사회봉사 1학점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이외에 해외의 농가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잡자리와 식사만 제공받고 무상으로 일을 해 주는 우프(WWOOF) 등도 현재 6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가 발표된 이후부터다.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조치는 87년 6월 항쟁, 88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국민적 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과 80년대 저금리, 여유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가능했다.

그러나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해외어학연수 등이 활발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89년 자유화 조치가 어학연수들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남학생들의 경우에만 해당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병역 미필자인 남학생의 경우는 92년이 되어서야 몇 주간의 해외여행정도만이 승인된다. 이는 대학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 90년대 초반까지는 어학을 목표로 한 어학연수보다는 단기간 해외에 머무는 배낭여행 등이 대세를 이룬다.

이후 94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가 부흥하려면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이 때문에 영어 어학능력이 기업에 인재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이 됐다. 이런 이유로 일반 대학생들이 어학연수의 대열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고 90년대 후반에는 병역 미필자도 1년 간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이 행렬에 동참했다. 이런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해외체험 형태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방학에는 자신의 방에서 '방콕'을 즐길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 몸소 부딪쳐 보며 진정한 탐의 의미 뿐 아니라 어학 실력도 쑥쑥 키워 보는 것은 어떨까.



해외체험활동의 보편화 계기

그렇다면 이러한 해외체험에 처음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대학가에 해외체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때는 89년 해외여행 전면자유화조치

가 발표된 이후부터다. 해외여행 전면자유화 조치는 87년 6월 항쟁, 88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국민적 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과 80년대 저금리, 여유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 등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가능했다.

그러나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해외어학연수 등이 활발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89년 자유화 조치가 어학연수들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남학생들의 경우에만 해당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병역 미필자인 남학생의 경우는 92년이 되어서야 몇 주간의 해외여행정도만이 승인된다. 이는 대학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 90년대 초반까지는 어학을 목표로 한 어학연수보다는 단기간 해외에 머무는 배낭여행 등이 대세를 이룬다.

이후 94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가 부흥하려면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고 이 때문에 영어 어학능력이 기업에 인재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이 됐다. 이런 이유로 일반 대학생들이 어학연수의 대열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고 90년대 후반에는 병역 미필자도 1년 간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이 행렬에 동참했다. 이런 추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해외체험 형태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방학에는 자신의 방에서 '방콕'을 즐길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 몸소 부딪쳐 보며 진정한 탐의 의미 뿐 아니라 어학 실력도 쑥쑥 키워 보는 것은 어떨까.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해외탐방장학제도 담당자 인터뷰

“전공 심화시키는 기회로 삼자”



동국대해외탐방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해외경험을 넓히고 현장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해외탐방장학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학생복지실 박훈선 계장을 만나 전반적인 사항을 들어보았다.

- 해외탐방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응모자격은.
= 재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장학규정에 따라 직전 학기 17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평균 3.0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명(동일전공)의 구성원이 한 팀을 이뤄 총 20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탐방활동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1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남미 7팀, 유럽 7팀, 일본 3팀, 중국·아시아 3팀 등 총 20팀을 선발 하지만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인원을 추가할 발할 계획이다.

- LG글로벌 챌린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 LG글로벌 챌린지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도전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본교 해외탐방장학은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 그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을 실시. 열정적인 도전의지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에서 탐구할 줄 아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해외탐방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 학교 홈페이지와 각 단과대에 공문을 보내 홍보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하다. 앞으로는 해외탐방 활동 장소 및 내용에 관한 사진 전시회를 마련하고 탐방 보고회를 주최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해외탐방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투어형식의 장학사업이 아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탐방장학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1, 2차 해외탐방에 다녀온 학생들은 간접체험을 후배에게 들려줌으로써 전통적으로 그 맥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기획부
special@dongguk.edu

본교 해외지원 프로그램 분석

탐방 · 봉사활동 등 운영 ... 분야다양화 지원확대 필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학생들의 해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각 대학들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다.

본교의 해외지원프로그램에는 △해외탐방 △해외봉사활동 △IT연수 등이 있다.

이 중 해외 탐방은 해마다 1회 3인 1조로 이뤄진 20개팀을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2주정도 파견해 자신의 전공과 연관시킨 학문을 접하고 오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전공관련 외에 취미와 소질을 살리기 위한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문화를 배우고 이색적인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임무를 내려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의 어느 대학 총학생회와 학술적인 교류협정체결을 맺어오라' 등 이색적

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문한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학생지원팀 이경훈 과장은 "짧은 시간에 해외에서 깊은 학문을 접하고 오기는 쉽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학업보다는 학생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경희대도 전공 제한없이 국제적인 수준의 노하우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야면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 본교에서도 동아리, 소모임 등 전공 이외에 여러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전공 외에도 활동적인 모임의 학생들에게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봉사활동은 중국 조선족학교에서 실시되는 것과 한국대학생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활동이 있다. 해외봉사활동을 하려면 자신이 5~60만원 정도 부담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한편 본교의 해외봉사활동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태평양 아시아 청수년 봉사단, 호주대사관 주관 봉사활동 등 종류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참사랑봉사단의 최정숙 직원은 "매년 봉사활동에 지원자가 넘치고 있다"며 "봉사활동종류를 늘려야 하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 교환학생의 경우를 살펴보자. 본교는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의 학교와 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예술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일본과 맺은 대학은 전부 불교종립대학으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류실 송민수 과장은 "현재 학생들은 세계 100대 대학 등 경쟁력 있는 학교가 아니면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올해 말경 미국 명문대인 UCLA 대학과 협정체결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

했다.

교환학생제도 이외에도 해외 IT연수가 시행되고 있다. IT연수는 △정보관리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학과 등 IT관련학과에서 6개월간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정보통신부에서 900만원과 학교에서 등록금의 70%를 지원한다. 본교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과 교육, 관리환경 등이 잘 돼 있어 타 대학보다 많은 학생이 선발되고 있다.

현재 해외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대학가에서도 해외봉사, 탐방 등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시키는 실정이다. 본교에서도 해외의 다양한 분야로 본교 학생들을 해외로 진출시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이 지원될 기대해 본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2004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한시간을 얻으면 백가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시간이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도 고를 수 있습니다. 평생느낌표 되어줄 책한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런닝머신, 아령도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한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필동 - 강북에서도 강남에서도 오시기 편리합니다)

대학원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전형일	홈페이지주소	문의처
일반대학원	주간	5/24(월)~6/3(목) - 인터넷 6/2(수)~6/4(금) - 방문	6/19(토)	http://graduate.dongguk.edu/gs/	(02)2260-3116
불교대학원	야간	5/24(월)~6/4(금)	6/9(수)~10(목)	http://graduate.dongguk.edu/bs/	(02)2260-3097~8
행정대학원	야간	6/1(화)~6/15(화)	6/19(토)	http://graduate.dongguk.edu/pa/	(02)2260-3102~3
경영대학원	야간	5/17(월)~5/27(목)	5/29(토)	http://graduate.dongguk.edu/ba/	(02)2260-3106~7
교육대학원	야간	5/24(월)~5/28(금)	6/5(토)	http://www.dongguk.edu	(02)2260-3110~1
언론정보대학원	야간	6/1(화)~6/10(목)	6/12(토)~14(월)~16(수)선택	http://graduate.dongguk.edu/ci/	(02)2260-3722~3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야간	5/31(월)~6/11(금)	6/12(토)	http://gsite.dongguk.ac.kr	(02)2260-3602~3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5/31(월)~6/8(화)	6/12(토)	http://graduate.dongguk.edu/ca/	(02)2260-3606~7
국제정보대학원	야간	5/24(월)~6/4(금)	6/11(금)	http://graduate.dongguk.edu/iai/	(02)2260-3731~3
불교문화대학원(경주)	야간	6/1(화)~6/10(목)	6/12(토)	http://gsbc.dongguk.ac.kr	(054)770-2393~5
사회과학대학원(경주)	야간	6/7(월)~6/18(금)	6/19(토)	http://wwwk.dongguk.ac.kr	(054)770-2093~4

동국대학교 www.dongguk.edu

낙산학사 성수기 개장 안내

■ 사용대상 : 동국대학교 재학생
■ 개장기간 : 7. 1(목) - 8. 21(토)
■ 사용가능일수 : 3박 4일(회차별로 운영)

구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1회차	7월 1일 - 7월 4일	7회차	7월 19일 - 7월 22일	13회차	8월 6일 - 8월 9일
2회차	7월 4일 - 7월 7일	8회차	7월 22일 - 7월 25일	14회차	8월 9일 - 8월 12일
3회차	7월 7일 - 7월 10일	9회차	7월 25일 - 7월 28일	15회차	8월 12일 - 8월 15일
4회차	7월 10일 - 7월 13일	10회차	7월 28일 - 7월 31일	16회차	8월 15일 - 8월 18일
5회차	7월 13일 - 7월 16일	11회차	7월 31일 - 8월 3일	17회차	8월 18일 - 8월 21일
6회차	7월 16일 - 7월 19일	12회차	8월 3일 - 8월 6일		

■ 캠퍼스별 배정 객실수(서울) : 20인실 5실, 7인실 6실
■ 신청기간 : 2004. 6. 16(수) - 6. 18(금) 09:00~17:00
* 6.16(수) 09:00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
■ 신청 및 배정방법 :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 (학교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시설대관서비스신청 - 낙산학사)
■ 사용요금 : 1인 1박 1,500원, 예약금 1실당 20,000원
■ 요금 납부방법 : 사용전 7일전까지 예약금을 시설관리부에 방문 납부, 인원수에 따른 추가요금은 낙산학사에 직접 납부
■ 유의사항
- 무료 셔틀버스(서울-낙산학사, 2회차~14회차에 한해 운영)를 운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예약대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약최소로 잔여객실이 생길 경우 대기 번호순으로 개별 연락하여 객실을 배정합니다.
- 남부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소도구는 개인별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 학생증 및 허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하며 위반시 퇴실 조치합니다.
- 출발 전 예상 도착시간을 낙산학사 (033-671-2181/구내 607번)에 미리 연락하여 주시고 늦어도 오후 9시까지에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기에도 잔여객실이 있을 경우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비성수기 수시 접수)
-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관리부(서울:3083)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무처

2004학년도 1학기 성적처리 일정 안내

1. 성적공시 및 정정 기한 : 2004. 6. 24(목) ~ 28(월), 17시까지

2. 성적 공시 : 6. 24(목) ~ * 6. 17(목) - 23(수)까지 입력 처리된 성적에 한하여 공시되며, 이후 입력된 성적은 담당교수별 저장처리 후 바로 공시됨.

3. 성적 정정 : (1) 공시된 성적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정정 가능 기간은 교·강사별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성적공시 및 정정기한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확인 및 정정하여야 함.

4. 성적표 E-mail 성적 발송 : 7. 1(목)예정

5. 성적표 발송 : 7. 5(월) 예정

* E-mail 등록 및 주소 확인 :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주소지변경에서 E-mail 등록 및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E-mail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개인성적을 발송함.)

교무처



국비유학생 유네스코 등 비영리·정부기관 소개

해외체험활동 나만 따라와~

▲한국국제협력단=개발도상국에 대해 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 지난 91년에 설립되었다. △연수생초청사업 △전문가 파견사업 △의료단 및 태권도 사범 파견사업 등과 함께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은 병역 의무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으며 19직종 총 4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오는 5일까지 국제협력단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 기타제출서류인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지원직종의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병적 증명서 등은 해외봉사단 모집 선발 상담센터로 우편 등기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740-5114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유네스코=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교류팀에서는 국제자원활동 중 하나로 워크캠프(Work camp)를 개최한다.

워크캠프는 보통 2~3주동안 진행되며 각 나라와 단체, 캠프 별로 △환경 △농업 △건설 △사회교육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개최 국가의 문화, 언어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18세 이상 30세 미만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7~8월에 캠프가 진행되므로 4~6월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 캠프는 보통 30명 내외의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로 구성되며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지만 나라별 캠프에 따른 참가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문의 02-755-1105
홈페이지 <http://youth.unesco.or.kr>

▲세계청년봉사단은 99년 설립된 의교통상부 등록 비영리기관으로 KOPION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27개국 80여개 총 450여명을 파견했다.

현재 제11기 해외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내일(1일)부터 24일까지는 이메일 접수를 실시한다.

20~35세는 Kopion Junior로 36세 이상은 Kopion Senior로 나누어 접수하며 Senior의 경우는 반드시 추천서를 내야 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50명씩 연 2회 파견하며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733-1387~9
홈페이지 <http://www.kopion.or.kr>
정리=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속담처럼 한 가지 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 독립심과 경험, 어학실력 향상 등 해외체험활동을 하면 수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다음에서 해외체험활동을 지원·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소개한다.

▲국비유학생=교육인적자원부는 해마다 4월~5월 정도에 약40여명의 국비 유학생을

선발한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받고 2차례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른 후 선발된다. 합격하면 2~3년 동안 국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병역 미필자의 경우 병역 특례 혜택을 받는다. 단 학위를 마치고 국내 기업에서 5년 동안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문의 02-3668-1375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중국 해외자원봉사를 다녀와서

내 삶에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

텅텅 심장의 공기는 가히 대륙이라 할 만큼 뜨거웠다. 난생처음 해외에 나가는 경험이 봉사활동이라는 의미있는 활동으로 되어 이번 중국에서의 생활은 내 생애에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중국으로 가기전에 현지 생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대륙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려와 달리 거부감보다 익숙한 생활이었다. 발해대 주변의 풍경은 이곳이 중국이라는 생각보다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떠나온 조용한 시골이라는 생각이 앞섰다.

발해대에서 만난 조선족 친구들은 맑고 순수했으며 배우고자 하는 의지 또한 선생님으로서 그 곳에 간 우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뜨거웠다. 컴퓨터 교육을 맡았던 나로서는 그들에게 가능한 많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지만 그곳의 컴퓨터 시설은 정말 열악해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주로 대학교에서 웹페이지 제작 기술의 기본이 HTML강의를 주로 했는데 처음 수업하기 전에는 과연 학생들의 반응이 관촬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 대부분의 웹디자인이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로써 작성되

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이용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지 컴퓨터 기반이 취약하고 더구나 윈도우 자체도 중문으로 되어있어 한글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어쨌든 우리 컴퓨터반은 그들에게 HTML을 강의하기로 결정하고 수업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첫 수업이후 발해대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고서는 우리의 걱정이 한낱 기우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컴퓨터 수업 자체가 반드시 실습이 병행되어야 하는 과목이라서 수업 내내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리 저리 움직여가며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 대부분의 컴퓨터 실력은 그리 높지 않아 기본적인 내용인 HTML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HTML 강의의 주된 골격은 우선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중국에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우리가 수행한 교육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

비단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발해대 친구들과의 식사시간이나 밤의 술자리에서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다룬 봉사에만 의미를 부여한다면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를 것이다. 어찌보면 그들에게 지식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뛰어난 컴퓨터 스킬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중국인이기 이전에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같은 민족이기에 그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절묘하게 자리잡은 그들의 위상. 또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꿈틀대고 있는 대륙의 한복판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기에

그들과의 대화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된 것이다. 지난 월드컵 때 바다 건너 대륙에서도 함께 한국팀을 응원하며 환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박차게 다가왔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침내 석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과 쌓아온 정 때문에 쉽게 헤어지기가 어려웠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인연은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이끌어 가는가가 더욱 중요하기에.

김상우(경원대 정보관리4)

주요 나라별 특색

이제 '맞춤' 어학연수 떠나자

미국
미국은 세계경제의 중심 국가로서 미국식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미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또한 사설어학원과 대학부설 어학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대학부설일 경우 학교에 포함된 도서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교별

로 한국학생이 많은 편이며 대도시 지역은 범죄율이 높아 생활환경이 불안하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자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일본과 중국

현재 경제난과 더불어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아시아권에서도 유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좋은 시설과 우리나라보다 잘 돼 있는 치안문제로 안전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해 유학의 많은 부담을 주는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중국의 경우는 비자발급이 손쉬운 뿐만 아니라 졸업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명문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한국인이 많아 외국어에 치중할 수 있는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다.

캐나다

캐나다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나라이다. 게다가 영어권 국가 중 가장 학비가 저렴한 편에 속한다. 영어발음은 사투리가 없는 북미식 표준발음으로 통일돼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비영어권 국가의 연수생들을 위한 영어교육 투자가 활발하고 대학부설 및 높은 수준의 사설 영

어 기관들이 다양하게 있다.

또한 세계 각지에 모여 든 이민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나라이다 보니 인종차별이 없이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생활 환경도 세계에서 인정받을 만큼 잘 돼 있어 많은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 때문에 한국인이 많으며 연수지역이 몇 군데로 한정된 약점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도 낮아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학비는 뉴질랜드가 숙박비는 호주가 비싸다. 현지인들도 친절하고 한국인이 적어 영어 학습 환경이 좋다.

또한 호주의 경우 학교소개를 받거나 현지 지역신문의 구인공고를 보고 쉽게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1년 이상 정규어학연수 과정을 듣는 외국인에 한해 방학 때만 허용된다. 하지만 지리적, 문화적으로 격리돼 있어 다양한 문화체험이 어렵다.

기획부
special@dongguk.edu

해외어학연수 Q&A

Q : 유학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A : 학교에 따라 수업료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학교의 운영 형태가 수업료를 좌우한다. 보통 한국인이 자주 찾는 국가의 한 달간 유학비(학비와 생활비)를 알아보면 △미국=200만원~350만원으로 비싼 편이고 △캐나다=150만원~200만원 △뉴질랜드=150만원~180만원 △일본=130만원~18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며 △중국=80만원~150만원이다.

Q : 짐 잘 갖는가? (기숙사/아파트/호텔스테이)

A : 미국의 대학은 대부분 넓은 캠퍼스 안에 Dormitory 라든지 Residence Hall이라 불리는 기숙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2인실 방이 많고 Roommate라 부르는 친구를 갖게 된다. 기숙사에는 파티도 자주 열리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친구를 만들기에겐 적격의 장소다.

처음 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기숙사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들 중에는 기숙사가 언제나 대학 정규 학생들로 만원을 이루어 제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아파트 생활을 하거나 호텔스테이를 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자취생활이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가끔 외식을 하기도 한다. 생활하기에 따라서는 보다 절약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입학일 1-2주 전에 현지 대학에 도착하여 Housing Staff의 조언을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고르면 된다.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변환경과 대학까지의 거리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고르고 자신이 정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또한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을 익히기 위해 호텔스테이를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부분 미국의 영어학교들이 선정한 민박집들은 중상층 이상의 안전한 가정이고, 학교 수업 후 집에 가서도 그들과 말할 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Q : 한국인 학생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아하니?

A : 유학에 드는 비용이 '영어를 향상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사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한국인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은 유학 목적의 중요한 부분을 잃을 수도 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다면 회화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국사람과 멀리해야 유학에 성공한다는 말은 아니다. 24시간을 영어만 사용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질식감을 느껴 유학 도중에 귀국한 경우도 있다. 문화충격을 받기 쉬운 사람, 향수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오히려 속 시원히 말할 수 있게 한국인이 있는 편이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어 유학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알맞게 한국인이 있는 대학이 바람직하지만 중요한 점은 본인의 유학에 대한 자세에 있다.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한국인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Q : 수업방식은 어떠한가?

A : 우선 한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전후가 이상적이며 수업안은 학습의 집중도나 여가 활용도, 학습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한 주당 20-25시간인 곳이 무난하다.

Q : 유학의 목적에 따라 가는 곳은 어떻게 되나?

A : 유학을 계획하기 앞서서 먼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유학을 가고자 하는가'이다. 만일 영어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목적이거나 유학 비용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비용이 저렴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영어실력 향상과 함께 다른 목적을 지닌 사람이라면 목적에 합당하게 학교 및 코스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집중 영어코스로 영어실력을 키운 뒤에 학부에 입학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과목이 있는 대학을 고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대체로 모든 대학이 집중 영어코스 수업 레벨이 되면 학부수업을 청강할 수 있으므로 입학 전에 어느 정도 학부수업의 분위기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장래의 직업을 위해 패션, 연극 등의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다소 비용은 들더라도 뉴욕 같은 지역에서 유학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무엇 때문에 유학하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보고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리=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